

■ 치과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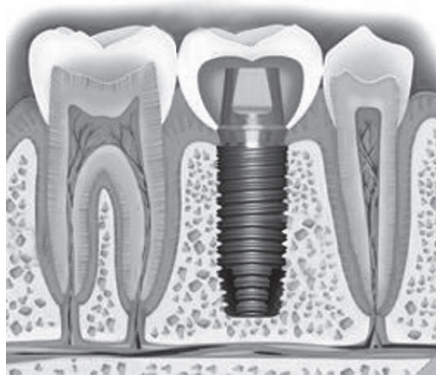
치과 임플란트의 접근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지?”
“잇몸으로 살지.”

누구나 한 번쯤 이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썰렁한 개그처럼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치과라는 분야가 없었을 때 이 말은 당연한 상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라믹이 개발되어 치과 진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인 1970년 때에는 금속이 크라운을 만드는 주재료여서 앞니처럼 심미적인 자연스러움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시 최대한 금속의 시커먼 색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방법으로 창문의 창틀을 응용한 크라운 제작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 들어서 재료 공학의 발전으로 세라믹이 치과계에 소개되면서 심미치과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파절 되기 쉽다는 세라믹의 단점이 기술력으로 보완되면서 이제는 심미치과 분야뿐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는 어금니 부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미적 요구가 큰 부위에 금속 색이 드러나는 치료법은 거의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라믹이나 합성수지처럼 자연치아 색을 가까이 재현해 낼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지던 것이 역사의 뒤안에 묻히고 새로이 개발된 방법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가 없는 경우 틀니를 만들어 잇몸 위에 얹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실된 이를 대신할 잇몸이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틀니를 받치던 잇몸은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무너져내려 결국 틀니를 견고하게 떠받치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기존 틀



니가 제대로 맞지 않아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고 새로운 틀니에 의해 잇몸과 턱뼈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을 통해 결국 틀니조차 사용할 수 없을 단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주변 잔존 치아가 튼튼하고 상실된 치아의 수가 몇 안 되고 주변 치아가 건강한 경우 그 치아들을 이용해서 상실된 치아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고정성 의치라고 하는데 보통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상실 부위 주변 치아들을 삭제하여 크라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가치를 넣어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고정성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넣었다 뺐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주변 치아가 상실된 치아들의 기능을 나눠 짊어질 만큼 튼튼하지 못하거나 상실 치아의 수가 너무 많아 잔존 치아들만으로 저작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분 틀니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이 또한 잔존치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 1223호에서 계속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교육

D와 F가 있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상위권 대학이든지 하위권 대학이든지 학교 성적(GPA)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희망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중간 정도에는 성적이 달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다.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곤두박질을 친 경우도 있고, 내내 낮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도 있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때 낮은 성적을 커버하는 방법은 1) SAT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는 다소 어렵다. 어느 날 갑자기 SAT 성적이 치솟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 2) 저학년의 경우 AP로 커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고 11학년인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 낮으면 낮은 대로 성적에 맞춰 대학을 찾는 방법이 최선이다. 미국 대학은 2,800여 개나 된다. 따라서 낮은 GPA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편입을 통해 상위권 대학으로 옮길 수 있다. 낮은 성적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다.

미국 대학에서 편입하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0~40%나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UC는 올 가을부터 편입생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UC 및 CSU 계열 대학 입학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UCLA의 경우 지난해 9,292명의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562명이 줄어든 8,730명을 뽑았다. 반면 편입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64명을 더해 4,652명을 합격시켰다. 버클리 역시 편입생 합격자는 전년도보다 65명 증가했다. 편입생을 가장 많이 늘린 캠퍼스는 샌타크루즈로 전년도보다 1,699명이 늘어난 7,027명이 합격했으며 그 뒤로 리버사이드가 1,065명을 추가해 총 7,070명의 편입생을 선발했다.

따라서 낮은 GPA 때문에, 혹은 갑자기 D, F 학점을 받아 대학에 어떻게 지원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은 한 템포 숨을 고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적이 낮다고 대학에 못 가지는 않는다. 어느 수준의 대학에 갈 것인가 그리고 2~3학년 때 편입을 시도할 것인가 미리 전략을 짜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이 3.0 미만 때로는 2점대 초반의 낮은 성적 학생들에게도 대학 입학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 낙담은 금물이다. 더더욱 이른 포기는 안 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